이 춘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윤 빛 내 리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춘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윤 빛 내 리

인 준 서

윤빛내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도심인 서울의 해가 뜨는 오전 시간과 늦은 낮 시간대의 건물 풍경의 일부를 소재로 작업한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 작업들 중 2012년 6월에 있었던 개인전 ' SOAR & Emergency'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업의 내용과 표현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공간의 함축적인 의미는 보는 사람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심리적·정신적으로 결정된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달양상에 따라 인간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져가고 있다. 인간이 살기 위한 정적인 공간의 의미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지향함이 도시 건물 공간에도 반영되었다.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때때로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보다 충만한 삶” 을 위한 인간의 작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본인이 'SOAR & Emergency'란 주제로 작업한 연작들은 도심 속에 자리한 특정 이름 있는 건물이나 관심 받을만한 공간이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삭막한 건물의 일부를 빛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고 단순화된 구조로 해석하여 표현한 것이다. 낯선 환경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치유하고 깨달아가기를 청하여 그려낸 자신의 모습이다.

또한 오전의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지는 시간대와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드는 시간대를 택하여 작업에서의 빛의 효과를 표현한 것은 시간성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영향에 주목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때를 이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발달 양상에 집중하다 잠시 여유가 생길 때면 밀려오는 공허함에 지친 나머지 향수를 그리게 되는 그 때, 어느 순간 낯선 환경에 있는 본인을 발견하고 쉴 곳을 찾아 헤매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나가 한번쯤 겪었을 스토리기도 하다. 답 없는 목표를 향해 마냥 달려가는 이들에게도 쉴 곳은 필요하다. 몸의 휴식처뿐 아니라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기구의 역할로 휴식 공간은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새로운 곳에 도약할 수 있는 구름판역할을 해준다. 그러한 공간을 찾기 위해 본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건물 공간의 일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의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환경과 경험의 심리적·정신적 지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낯선 공간에서 느낀 것을 개의치 않고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게하는 예술가의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 재창조된 공간과 시각을 대중과 공유하고 내면의 닫힌 문을 열어 본인과 더불어 소통하는 이의 내면에 숨을 쉴 수 있는 치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고는 작품형성 배경으로써 예술가의 공간지각과 유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 발달양상에 따른 건축물의 형성으로 인간이 느낀 환기구로써의 휴식처와 필요성을 논하며 본인 작품에서 도시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이 어떻게 표현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빛을 통해 본 공간의 생동감 있는 연출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공존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자 현실임을 상기시켜 줌을 표면

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논하였다. 조형적으로 도시건물 공간의 알레고리와 그 역할로 공간과 떼어 논할 수 없는 빛과 그림자, 색(色)을 주목하여 본인과 다른 시각으로 공간을 해석한 서도호의 작품 세계를 통해 본인 작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짚어보았다.

본 논문은 시대를 넘나드는 듯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인이 순수 회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예술가가 가진 감수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일상의 이미지를 다각도에서 해석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아래 적극적으로 수용한 연구 내용이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4

1. 작품의 형성 배경 ····· 4

1) 예술가의 공간지각과 유대관계 ····· 4

2) 도시발달과 건축물의 구조형성 ····· 6

2. 작품의 내용적 전개 ····· 8

1) 낯선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구(휴식처에 대한 갈망) ····· 8

2) 사고의 전환, 그리고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발견 ····· 12

3) 빛을 통해 본 공간의 생동감 연출 ····· 15

3. 작품의 조형적 전개 ····· 17

1) 도시 건물공간의 알레고리 ····· 17

2) 빛과 그림자 ····· 21

3) 색(色) ····· 26

4. 작품 분석 ····· 28

Ⅲ. 결 론 ····· 4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홀로, 55.0x100.0cm, 실 드로잉, 2006 ····· 9
[작품2] 우리우리, 120.0x50.0cm, 실 드로잉, 2006 ····· 11
[작품2-2] 우리우리-detail, 120.0x50.0cm, 실 드로잉, 2006 ····· 11
[작품3] 돈암동 B카페에서,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 13
[작품 3-2] 성균관 앞1,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 14
[작품 3-3] 성균관 앞2,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 14
[작품4] 견고한 성,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23, 28
[작품5]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1
····· 30
[작품6] Emergency, 50.0x65.1cm, Mixed media, 2011 ····· 32
[작품7] Emergency, 50.0x65.1cm, Mixed media, 2011 ····· 34
[작품8] 무제,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 23, 36
[작품9] 원풍(遠風), 90.9x65.1cm, Mixed media, 2011 ····· 38
[작품10] Purify,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 23, 40
[작품11] 경계근무, 97.5x43.0cm, Charcoal on paper, 2011 ····· 42
[작품12] Soar, 145.5x89.4cm, Oil on canvas, 2012 ····· 44
[작품13] Soar, 162.0x60.0cm, Oil on canvas, 2012 ····· 46

도판 목차

[도판1] 서도호, 별똥별 - 1/5, 혼합 매체, 2008-2011 ····· 21
[도판2] 서도호, 집 속의 집 - 1/11 - 프로토타입, 스테레오리토그래피, 2009 ····· 21
[도판3] <복숭아와 유리단지>, 서기 50년 프레스코 헤르쿨라네움 출토 ····· 22
[도판4] 시슬레. <모레의 교회>, 65.0x81.0cm, Oil on canvas, 1893 ····· 25

Ⅰ. 서 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게 될 때 생기는 낯선 느낌은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 중 한가지 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적응을 빨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생활하거나 혹은 적응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익숙한 공간이 되기 이전까지의 시간은 낯선 공간 또는 긴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카르페 디엠"[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는 의미의 이 말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말이다. 유년기 시절을 농촌의 자연 속에서 보낸 본인이 학업을 위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환경을 접하며 처음 느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는 방법은 자신의 사고와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통합적 작용이다. 인간이 조화롭게 발달하기 위해서 예술은 의미심장하게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에 예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칫 한쪽으로 치우쳐 질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이성이라는 의지를 기울여 균형을 이루듯 작가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균형을 이루는 역

---

1) carpe diem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아라(영어로는 Seize the day 또는 Pluck the day)'로 번역되는 라틴어(語)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이 말을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진 용어로, 영화에서는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 키팅 선생은 영화에서 이 말을 통해 미래(대학입시, 좋은 직장)라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학창시절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중요한 순간임을 일깨워 주었다.

할을 수행한다면 작품과 소통하는 대중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그들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본 작품연구 논문은 본인이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 공간에 적응하는 시기에 경험하고 느끼게 된 것으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 사고에 치우쳐 편파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순수회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술가의 시각으로 내·외적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리하여 이상향으로 바라본 건축공간의 일부를 빛과 그림자, 색을 이용하여 휴식공간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일련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연구목적은 예술가의 공간지각과 유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낯선 도시공간을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도로부터 생명이 없는 인공적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삶을 회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본인의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은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표현연구’라는 주제 아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되고 ‘SOAR & Emergency'전에 전시된 작품을 통해 Imagination으로서 바라보고 의미 없는 공간이 치유 공간의 개념을 갖게 된 형성배경을 연구하여 작품의 내용적인 전개와 조형적인 분석으로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예술가의 공간지각과 유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서 예술가의 역할과 시각을 언급하고 작품이 형성된 배경인 서울의 도시발달을 살펴보고 급격한 도시 발달과 도시 건축물이 형성됨에 따라 그 속에서 치유 공간의 필요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중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표현연구 ’ 주

제 아래 ‘SOAR & Emergency’ 전을 하기까지 초기, 중기, 후기 작품을 토대로 작업을 한 시기와 주제에 따라 낯선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으며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발견, 그리고 빛을 통해 본 공간의 생동감 연출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안에서 도시 건축물의 휴식 공간이 지닌 알레고리를 찾고 빛을 통하여 색으로 그림자를 해석하고 그림자가 가진 내재적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서 공간과 그림자는 뗄 수 없는 공존 관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한 눈에 잘 띠지 않는 존재가 없이는 주목받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공존의 사회임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는 10점의 작품들을 제작 배경과 내용, 표현 방법을 주목하여 각각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예술가의 공간지각과 유대관계

공간의 함축적 의미는 보는 사람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심리적 · 정신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어떠한 장면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그 공간이 낯설고, 이질감이 들것이다. 사람이 환경과 경험을 의지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지각하듯 예술가 역시 환경과 경험을 많이 의지하며 지각한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공간에서 지각한 것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화면에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의 많은 부분을 대상세계에서 얻은 경험에 근거해 제작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공간의 원천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다.[2] 본인 또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시지각[3]이 발달됨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에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공간이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삶이 조직되는 구체적 형식이고 경험과 사유가 여타 다른 사회적 요소들과 직조되도록 하는 물리적, 인식적 지반이

---

2) 곽재은, 황재은 옮김. (2004).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p.183

3) visual perception , 視知覺 시자극을 조직하여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시지각 기술은
- 사물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구별하는 시각 변별(visual discrimination),
- 불완전한 자극의 완전한 형태를 알아내는 시각 종결(visual closure),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 숨겨진 자극을 확인하는 전경-배경(figure-ground), 자극을 정확한 형태로 재생해내는 시각 기억(visual memory)등을 포함한다.

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공간 안에서 실재하는 물리적 육체는 공간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지된다. 그리하여 공간의 변화는 인간의 의식적 변화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따라서 공간은 물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세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다.[4]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공간에 속해 있는바 의식을 초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를 형성하고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지각된 이미지 그대로 작품에 표현 한다면 현실 보고로서의 작품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술가는 새로운 시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리기를 그친다면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재미 또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상상하고, 창조하는 개념으로서의 예술가의 임무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을 새롭게 지각하고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작품화 하는 것은 능동적인 예술가의 자세다.

유년기 시절 동안 본인이 지내온 곳은 높고 푸른 산이 있고, 눈을 돌려보면 시선이 향하는 곳이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이었다.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대도시 서울에 왔을 때 오히려 높은 빌딩에 가려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최신 유행과 모든 것들이 가장 빠르고 화려하게 변해가는 서울의 모습이 대조되어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밤의 건물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지만, 낮의 건물들은 밤의 화려함과

4) 박영택(2009). 테마로 읽는 한국현대미술-9.자연공간에 대한 해석- 산수-탈산수 풍경. 두산아트스쿨 강의자료.p.1

현란함의 자취는 감추어지고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삭막한 느낌마저 들게 하였다. 이렇게 본인이 공간을 통하여 지각한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본인은 현실에서 느낀 것들을 정화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현실 보고의 개념으로 작품화 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의 전시를 통해 본인이 지각한 부정적인 느낌이 그대로 대중에게 소통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한 곳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공간에서 지각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작품화하는 것이 예술가에게도 자연스럽다면 지각된 것들을 그대로 작품화하기에 앞서 소통하는 이에게 본인의 어두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술가로서의 기본 되는 책임으로 소통하는 대중에게 어떤 시각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은 초기 작품에서 본인의 감정을 보고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 다음 작품에서는 깨달음을 토대로 희망을 담아 내고자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보고, 혹은 현실과의 동떨어진 작품에 그친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현실을 다르게 지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작업과의 유대관계를 고민하게 되었다.

2) 도시발달과 건축물의 구조형성

- 급격한 도시발달에 따른 도시 건축물의 형성과 현실속의 치유공간의 필요성

조일수호조규에 의하여 개국이 되고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 동아시아 및 서구 열강의 강요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 등이 개항되면서 주요도시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화를 겪게 되었다. 1900년 일본

인, 중국인 기타 외국인들이 인구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이 성 내외에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게 되자 철도와 시내 전차와 같은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들이 부설되고, 도로가 확장되는 등 근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급속한 변화가 동반되었다.[5] 서울이 꾸준하게 발달, 팽창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연의 모습을 찾아보기보다 회색빌딩 숲을 찾는 것이 더욱 수월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편안하고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회색 빌딩숲으로 이어졌다. 본인의 눈에는 높은 회색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서울의 공간에서 사람은 여전히 편안하길 바라며 숨 쉴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였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 차타고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인다.
옥상위에 있는 사람,
난간에 나와 있는 사람,
창문 너머 창문 속에 보이는 사람...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빛이 드는 공간에 사람들이 있다.
내게는 낯선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자연의 통로인데
저들도 나와 같이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일까?

-2006 작업노트 중-

서울의 도시화 발달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시작 되었으나 양적 발

5) 김광중(2001). 20세기 서울의 성장과 변화.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p.13
1910년 기준으로 볼때 용산은 경성부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달에 치우친 나머지 21세기 현재, 도심으로서의 서울에서는 숨 쉴 공간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쉴 곳을 찾아 건축물 바깥으로 옥상이나 창문,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빛이 드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들 또한 익숙한 공간에 대한 향수와 휴식처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여졌다. 물론 카페나 휴양시설이 도심 내에도 많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휴식처를 찾는 능동적 사고를 통해 건축 공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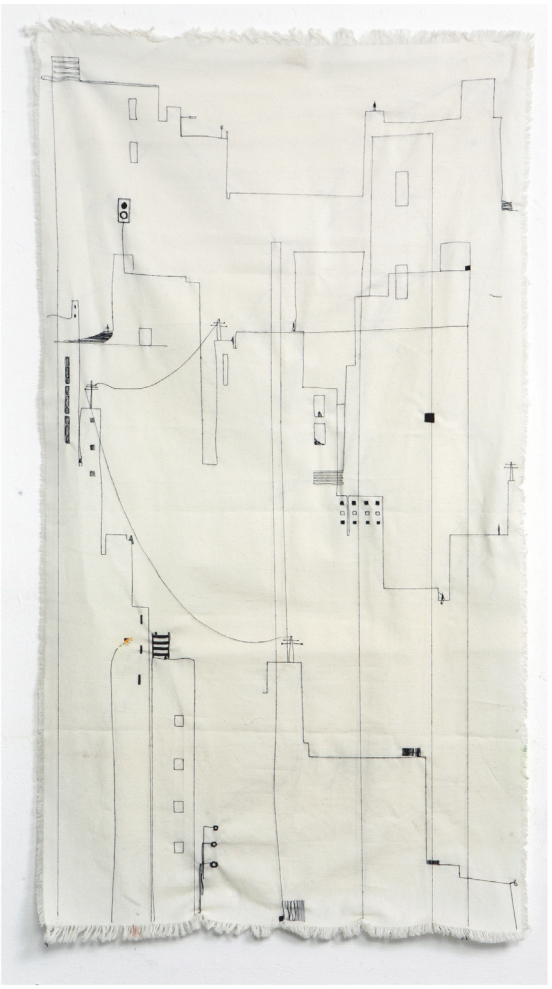
2. 작품의 전개

1) 낯선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구(휴식처에 대한 갈망)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다. 도시의 노동자들에는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산업 노동자들이나 고층빌딩 또는 지하 공간에서 숨 막히며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쾌적한 빌딩 사무실에서 종이서류나 컴퓨터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무직·기술직 노동자들도 포함된다.[6] 더불어 살아가고 정적인 관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의미에서의 공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익숙한 공간, 편안한 공간을 찾기보다 분주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임을 깨닫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그러한 현대인은 누구나 숨 쉴 틈을 찾고자 하며 자신의 이상향으로써의 휴식공간을 갈망한다. 본인은 유년기 시절을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에서 보냈다. 학업을 위해 이주하게 된 서울의 환경은 산이 있을 곳엔 높고 삭막한 빌딩이 숲이 우거지듯 자리하고 있었다. 초록

6) 최병두,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 아카데미, 2009, pp.35-36

색이 아닌 회색 콘크리트와 대리석 건물들이 차갑게 밀집되어 있는 곳 푸른 숲은 시골과는 대조적인 이질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때문에 유학 오기 이전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갈증을 느꼈다. 바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왔으나 눈에 보여지는 환경의 익숙함은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점이 낯선 환경을 감수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숨 쉴 곳을 갈망하는 현대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본인은 그 방편으로 자연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곳은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드는 창문이 있는 곳, 그리고 햇빛과 맞닿은 옥상, 비상구로서의 계단이다. 익숙한 곳에서 이동하여 낯선 공간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 살아 숨 쉬는 존재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생명력 없는 딱딱한 철골구조와 유리,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 공간은 인간이 생활하는 이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의 환기구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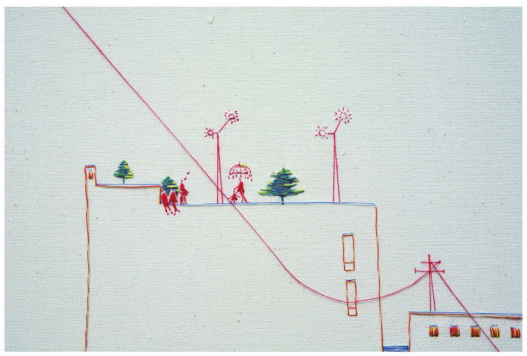
[작품 1] 홀로, 55.0x100.0cm, 실 드로잉, 2006

본인의 작품 중 2가지를 통해 낯선 현실에서의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갈망을 표현하였는지 말하고자 한다. 낯선 환경을 경험할

때 때때로 사람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질적인 현실과 맞닿았을 때에는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 본인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작품1] ‘홀로’는 본인의 2006년 초기 작업으로서 작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딱딱하고 수직적인 구조를 띄는 도시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실이라는 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바느질 기법을 이용하여 딱딱하고 높은 도시의 건물 풍경을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도시에서 느낀 표면적인 이미지는 차갑지만 본인의 정서는 정적이며 도시 이미지와는 반대인 심리적 양상을 띰을 보였다. 무채색인 검은색 실을 흰색 광목천에 배치한 것, 그리고 검은색과 희색의 화면 구성 비율이 시각적으로는 집중도를 높여주고,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검은색이 결코 적은 느낌이 아닌 화면 전체의 이야기를 이루는 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낯선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구, 즉 치유 공간을 찾아나서는 자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의 내면에 쉴 공간이 되는 계단, 창문, 옥상을 건물의 포인트로 삼고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자아의 존재감의 비중을 생각하여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본인을 작게 수놓았다.

[작품 2] 우리우리, 120.0x50.0cm, 실 드로잉, 2006

그러다 화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외로움을 치유하고자 낯설고 삭막한 공간에도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 다음 작업으로 [작품2] '우리우리'를 제작하게 된다.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가득한 것 같았던 곳곳의 장소에 사랑하는 가족, 연인이 있고 거리에는 소통의 도구로 전봇대가 수놓아져 있으며 거리에는 나란한 가로등이 아기자기한 맛을 더해주며 그림 내에 빛을 이미지 언어로 표현시키고 있다. 특히 이전엔 사용하지 않았던 색(色)을 사용함으로써 [작품1] '홀로'와는 다른 밝은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 또한 나무를 2가지 색(色)으로 표현하고 밤이라는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노란색 실을 사용하였다. 구도적으로 볼 때에도 수직구도가 아닌 수평의 와이드 구도를 사용하고 화면의 하단부에 이미지를 집중시킴으로 숨 쉴 틈이 작품 안에서



[작품 2-2] 우리우리-detail, 120.0x50.0cm, 실 드로잉, 2006

드러나게 하기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상향으로 바라본 도시건축물에서의 휴식 공간 표현연구' 의 초기 단계 과정으로 지각한 기억을 더듬어 이미지화 한 것이 중·후기 작품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작품2] '우리우리' 에서 표현한 내용은 실제 경험한 공간이면서 삭막함을 벗어난 상상의 공간이 된다. 본인의 갈망을 색의 변화나 화면에 담은 이미지. 그리고 수직구도와 수평구도에서 드러나는 차이로 정서적인 순화, 치유의 단계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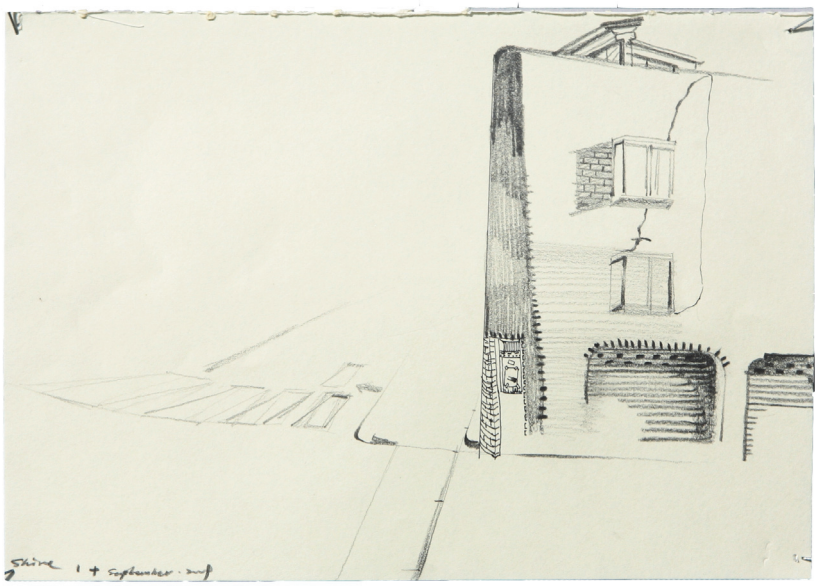
2) 사고의 전환, 그리고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발견

초기 단계의 작업과정에서 본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정체되어 있기보다 조금씩 도시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건축물 자체의 매력을 조금씩 본인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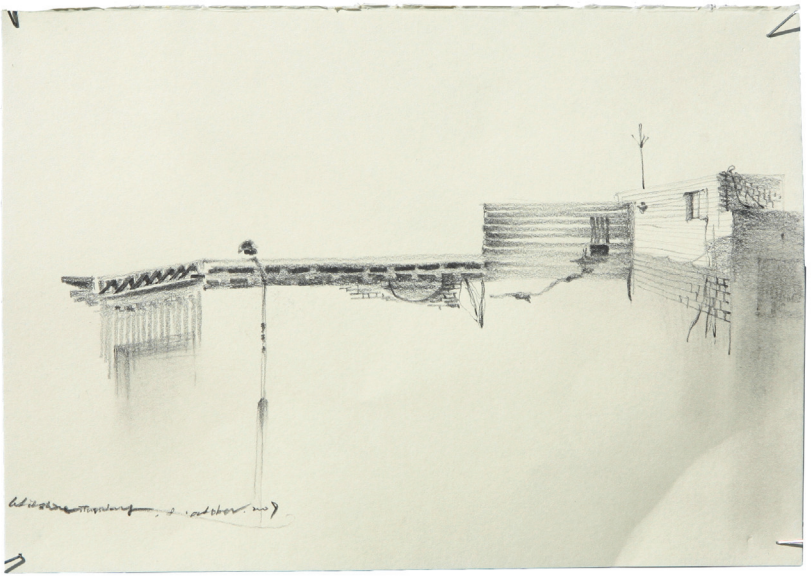
중기 작업단계인 [작품3], [작품3-2], [작품3-3]은 햇살이 따뜻한 오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차에서 내려 바깥이 잘 보이고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여유를 찾기 위한 작업과정 속에서 공간을 응시하다보면 햇살에 따라 건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반듯하게 떨어지는 도심의 건물들과 다르게 오후 햇살 아래 부서진 벽돌, 낡은 콘크리트 벽체, 늘어진 전신주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마저 들게 했고 빛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 속에 슬며시 보이는 질감의 형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본인은 그림자 안에 있는 사물 혹은 건물의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을 지각의 결과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사물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빛의 길이와 양에 따라 그림자는 강한 대비 효과로 사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더러는 그것이 검은색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림자가 다양한 색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회화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가 원래 사물의 보색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지만 위에서 본 [작품3], [작품3-2], [작품3-3]은 연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모노톤으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으로 그림자의 컬러를 연필의 톤으로 조절하여 그림자 안에 있는 사물의 실체를 보여주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건물 표면 안에서 재미를 찾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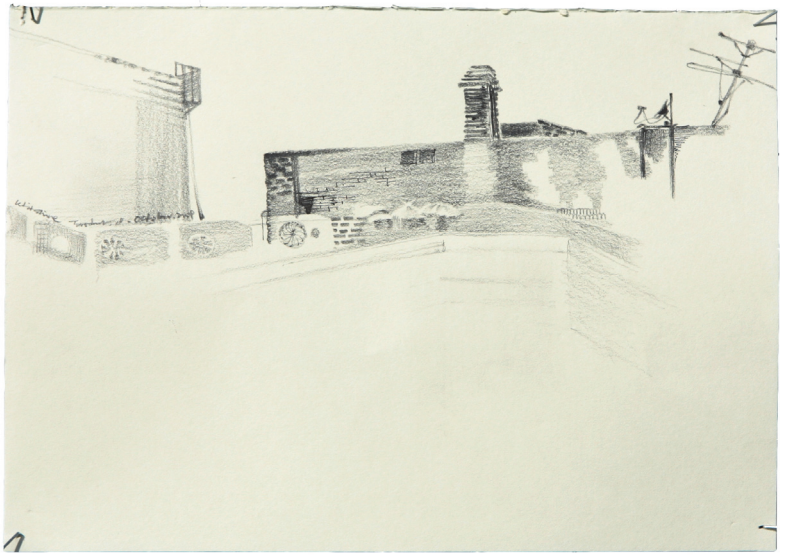
이 시기에 본인은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조형적인 재미를 찾고 작업에 그것을 투영시켜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사고전환의 계기가 되어 조금씩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고 그 일부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치유 공간의 개념이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나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었다.



[작품 3] 돈암동 B카페에서,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작품 3-2] 성균관 앞1,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작품 3-3] 성균관 앞2, 21.1x14.8cm, 종이에 연필, 2009

3) 빛을 통해 본 공간의 생동감 연출

앞의 중기에서 살펴 본 작품을 보면 거주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낯선 느낌, 이질감은 어느 정도 회복 된듯하다. 그러면서 본인의 시선은 외로움과 고독감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서울의 도심 안에 있는 건축물로 향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쉴 곳의 필요성은 느꼈고 그럴 때면 걸어 다니거나 학교 옥상에 올라가 빌딩 숲을 내려다보기를 즐겼다. 그러다 햇살이 길게 늘어지는 나른한 오후가 될 때면 건축물을 일부에도 그 햇살이 어김없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자는 빛의 산물이다. 그림자의 색이 검은 색이 아니라 빛에 반사된 사물의 보색이라는 점, 그리고 색은 빛으로부터 온 것으로 고유색이 없는 빛의 해 드러나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빛을 통해 본 공간의 생동감 연출의 역할은 그림자가 하고 있다.

본인은 그림자를 보며 건축물이 더욱 견고해 보이고 그 건축물 자체로 온전해 질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그림자는 눈으로 잘 응시하지 않으면 주목받지는 못하는 대상이다. 그렇지만 건물의 요소로서 그림자의 의미는 본인에게 새롭게 다가 왔으며 본인은 그림자에 색을 넣어줌으로 공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본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이른 새벽 5시~6시 즈음이다. 그와 관련하여 이전 2009년 작업노트 중 작업의 컬러를 결정 지어주었던 기록을 보려한다.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니 초록빛 숲이 여러 가지 색을 입고 있다.

보라색?
푸른색?
민트색?

안개 자욱한 틈 속으로 살며시 비친 그 색은 아리송...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 지는 것일까?
다채로운 회색빛깔처럼 느껴진다.

이 새벽에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서...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은 아직 낫질 않고 나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2009년 작업노트 중-

이른 새벽 몸과 마음이 깨어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하는 본인에게 그 시간과 그때의 색감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발판이 된다. 색은 자연이의 빛이든 인공의 빛이든 빛과 함께, 그리고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색도 흐릿하고, 빛이 강한 곳에서는 색도 선명하다, 새벽이나 일몰 때처럼 빛이 약할 때는 색채의 분간이 쉽지 않다.[7] 그런 시

7) 곽재은, 황재은 옮김. (2004).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p.149

간대였지만 시기적으로 정서적 불안 상태를 보내고 있던 본인에게는 강한 햇살, 선명하고 또렷한 그 무엇도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구체적이지 않고 또 선명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 모든 것들로부터 강요받기를 거부하고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의 그림자가 바로 본인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나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주고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감은 전달하고자 한다. 건축물은 생명력 없는 재료들로 이루어진 인공물에 불가하지만 빛이 비춰지니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드리워진다. 그래서 건축물 내 생명력 없던 공간에 본인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었던 시간대의 색(色)을 실어 넣었다. 그 결과 이상향으로 바라본 공간은 생동감 있는 곳으로서의 연출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는 작업의 후기 과정으로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표현연구'의 메인 작업이 만들어진 때이다.

3.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도시 건물공간의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그리스어 '다른'과 '말하기'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알레고리아'의 영어식 표현이다.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수사법의 하나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만한 적합한 대상이나 상황을 대신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가 알레고리의 쉬운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동물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탐욕, 게으름, 어리석음 등을 드러내는 알레고리이다. 흥미

로운 것은 이러한 수사의 한 갈래로 전해진 알레고리가 미술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표현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르네상스 이래 고대 시인과 같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소망해온 많은 미술가들은 마치 시에서처럼 상징과 암시를 매개로 하는 알레고리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다른 것으로 말하기' 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알레고리는 두 겹의 의미 층을 갖는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인물, 행위, 배경 등 통상적인 요소들을 형상화하여 일차적인 의미를 이루고, 그 내면에는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개념과 같은 이차적 의미를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레고리적인 작품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와 내용 보다는 그것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국가론[8)]]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는 당대 철학적 개념의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동굴에 갇힌 죄수는 오로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을 진실 된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8) 플라톤 저서로 이 책은 보통 '국가 혹은 정의에 대하여'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서는 플라톤의 교사 시절의 작품으로 40~60세 사이에 씌어졌고,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다. 중기 플라톤의 대략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종일관하여 "정의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폴리스)의 성립 그 사태를 문제로 하는 일, 결국 국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이상의 물음에 당장 부딪히는 국가라는 '큰 문자'속에서 고찰한다라는 방법론적인 필요에서 생긴 것이다.
거기에는 왜 우리의 존재, 다시 말하면 영혼의 상태(작은 문자)와 국가의 상태라는 것이 비슷하게 비례하여 이야기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또 국가라는 존재가 각각 여러 가지로 제 능력을 자신 속에 포함하면서 그 자신은 결코 그들의 제 능력의 단순한 총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인간(결국 영혼)으로서 또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곧 정의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또한 인간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있어서 왕이 되어 통치하거나 혹은 현재 왕으로 불리거나 권력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충분히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국가에도 인류에도 불행은 그치지 않는다. 철학자란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철인왕(哲人王)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善)의 이데아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의 이데아는 태양과 같아서, 인식되는 것에, 진리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오히려 진실은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다. 즉 모방의 세계가 아닌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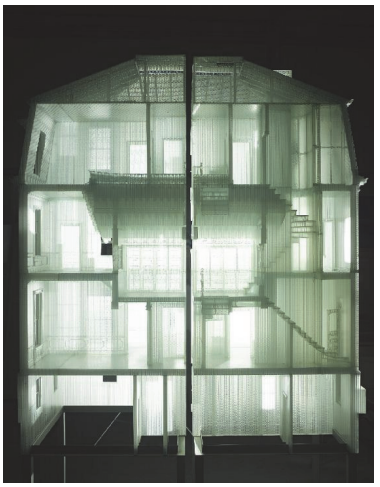
본인의 작품에서 건축물의 치유 공간이라 일컬어지는 부분 중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은 알레고리의 개념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색을 이용하여 본인의 심상을 담은 공간이고, 또한 본인의 이상향으로 바라본 주관적 개입이 있는 쉼터로서의 공간이다. 때때로 [작품7],[작품9]와 같이 가볍게 물감을 한 방향으로 흐트러뜨리며 바람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작품8],[작품10],[작품11]과 같이 빛의 맛을 살리려 붓에 물감을 최소화하여 여러 차례 스텐실 기법으로 색을 올리거나, 재료의 사용을 본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하여 목탄을 도포하여 빛살가루의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는 한층 더 이상향으로 가까워 질수 있는 표현기법이다. 이러한 효과로 낸 이미지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느꼈던 눈에 보이는 자와 드러나지 않는 자의 공존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목이 집중되는 무언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지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하여 존재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파 조연배우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명칭상 주인공이란 단어와 조연배우라는 말을 하였지만 서로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조력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주인공은 ‘Hero’에 해당하고 조연배우는 ‘Supporting actor’에 해당하지만 그저 역할이 다른 것이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서로 돕고 함께하지 못하면 건축물에서 그림자가 그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빛이 없으면 건물도 드러나 보이지 못하고 또한 그림자 역시 생성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으면 건물은 그렇게 위엄 있는 자태나 섬세한 면모를 드

러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알레고리로는 내적 심상의 연결고리다. 이상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현재 본인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은 더 이상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겉모양은 다르지만 정서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과거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여진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상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판1] 서도호의 '별똥 별' 이라는 작품은 서도호가 그리워하는 향수의 공간 전체를 현재의 공간에 가져오는 설치 작업으로 그가 짓는 집은 그것이 전시되는 공간과 반응하며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본인은 현재 있는 공간 안에서 시각을 달리하여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본인의 이상향으로 지각하고 치유 공간이 되게 하고자 Imagnation을 설정하여 내재적 심상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려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도판2]에서의 그의 작품 <집 속의 집-1/11>에서는 미국 집 안에 자리 잡은 한옥을 통해 점차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화적 충돌을 겪었던 작가의 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 문화, 지역 등 '다름'에서 비롯되는 충돌을 늘 경험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인 또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자 작품으로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을 묘사 하였고 그것은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기 전에 이미 새로운 지각의 결과물로 편안한 쉼터가 된다. 또한 이상향으로의 알레고리를 가지고 현대사회 내의 모습을 상징하는 맥락에서는 서도호와 유사한 점이 있다.

[도판 1] 서도호, 별똥별-1/5, 혼합매체, 2008-2011



[도판 2] 서도호, 집 속의 집 -1/11-프로토타입, 스테레오리토그래피, 2009

2) 빛과 그림자

서양회화는 일찍부터 빛과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존하는 로마시대의 벽화나 모자이크에서도 양감이 표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 로마인들도 빛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화에서 양감과 덩어리 감의 표현은 사물의 표면 위에 밝고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써 이뤄진다. 로마 회화는 양감의 표현을 통해 빛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냈다. 가끔 사물의 그림자가 주위의 바닥이나 벽에 드리운 모습도 그려넣음으로써 빛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헤르쿨라네움에서 출토된 벽화 <복숭아와 유리단지>[도판3]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기 50년에 제작된 프레스코 작품이라 서툰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림자와 빛이 함께 표현됨이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또한 빛과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표현해야 작품의 내용적 측면이 설명가능해 진다. 빛과 그림자는 당연히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함께 표

현됨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도판3]에서 의식적으로 빛을 표현한 맥락에서 본인의 작품도 빛과 그림자를 함께 표현함이 의식적으로 계획된 바를 설명하고자 함이다. 또한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이 본인은 공간과 그림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두 관계가 굉장히 서로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3차원의 공간에 빛만 존재하고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2차원 평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림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공간은 더욱 입체성을 띠게 된다. 그리하여 본인은 공간과 뗄 수 없는 그림자를 주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고 공간과 그림자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빛과 공간 그리고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콘트라스트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공간 이외의 공간은 빛을 이용하여 생략하거나 단순화 시키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작으로 [작품4],[작품8],[작품10]의 작업 과정을 참고하였다.

[도판 3] <복숭아와 유리단지>, 서기 50년 프레스코 헤르쿨라네움 출토

<지각된 공간>

<이상향으로 바라본 휴식 공간>

[작품4] 견고한 성,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완성된 이상향의 휴식 공간>

<지각된 공간>

<이상향으로 바라본 휴식 공간>

[작품8] 무제,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완성된 이상향의 휴식 공간>

<지각된 공간>

[작품10] Purify,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완성된 이상향의 휴식공간>

본 작업에서 보다시피 불필요한 요소들은 빛에 의하여 제거되고 실상과 그림자만을 배치시킴으로 인하여 밝고 어두움의 대비가 강하게 드러났으며 본인이 건축물의 치유 공간이라 주장하는 공간의 영역만 확실하게 표현되었다.

그림자(Shadow)는 빛의 경로 상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을 때 빛의 성질 때문에 물체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말한다. 빛과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건물이 표면적 이미지로 완벽하고 온전한 건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빛이 있어야 하고 빛에 의한 그림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빛이 없으면 건축물 자체의 형상을 만들어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할뿐더러 그림자가 없다면 입체적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위엄 있거나, 부드러운 느낌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림자 부분의 중요성이 본인의 그림에서는 확연히 드러내야하는 이상향의 치유 공간이다. 그 공간은 본인의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상상이 있고 창조의 힘이 나오는 휴식처의 개념을 가진 도심에서의 환기구이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강조하고자 본인에게 쉼, 그리고 평안함, 안식을 주는 블루, 민트, 퍼플계열의 색(色)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인과 같이 그림자의 컬러를 블랙이 아닌 컬러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빛의 발견은 1830년경 마차를 타고 외출하던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1798~1863)에 의해 우연히 명암대비법(明暗對比法)에 대한 허상이 깨지면서 시작됐다. 들라크루아는 자신이 타고 가던 노란 마차가 숲 그늘 속에 들어갈 때 마차 그림자의 색이 검정이 아니라 짙은 보라라는 대 발견을 하였다. 즉, 그림자와 그늘이 블랙 혹은 짙은 브라운이 아니라 색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 사물의 그림자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색채의 보색이라는, 이러한 발견은 회화에 색채의 순수성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들라크루아의 초기 실험단계를 거쳐 인상 주의자들은 명암대비법 대신에 냉온대비법(冷溫對比法)을 이용하여 자연이 갖고 있는 색채의 순수성을 화폭에 담았다. 예를 들어 냉온 대비법은 주황색 사물을 묘사할 때 어두운 그늘 부분과 그림자를 보색인 파랑으로 표현한다.[9] 또한 빛과 관련하여 서양 미술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된 19세기 '빛의 화파' 라 불린 인상파 화가들은 광학지식의 발달에 도움을 얻어 우리가 보는 사물의 색이 실은 빛의 반사(그리고 투시와 흡수)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빛에 반사의 의한 것이기에 빛의 밝기, 각도, 혹은 대기의 흐름에 따라 사물의 색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물이 고유색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화가가 그려내는 사물은 사물이아니라 사물에 반사된 빛이라는 의식으로 그림자도 결국 빛이며 직사광은 없으되 반사광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검은색은 다른 색 물감으로 그림자를 표현하게 되었다.[10] 이와 관련하여 [도판4]을 보면 그림자의 컬러가 보라색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본인의 작품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 3)색(色)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도판 4] 시슬레, 〈모레의 교회〉, 65.0X81.0cm, Oil on canvas, 1893

9) 김현화. 20세기 미술가. 한길아트. 1999. p.18
10) 이주헌.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학고재. 2003. p.186

3) 색(色)

빛이 없으면 색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색은 철저히 빛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빛은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그리고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유색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색(色)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으로 색(色)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느낌이 달라지고 색(色)이 입혀진 사물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효과 또한 창조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색(色)을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가 차갑고 어둡고 답답하게만 느꼈던 서울 도심의 건축물들이 띠고 있었던 색(色)으로부터의 정서적 영향을 능동적으로 변환시켰다. 앞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과 같이 본인에게 블루, 민트, 퍼플 계열의 색채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이다. 본인이 새벽에 느꼈던 정서적 안정감을 대표할 수 있는 블루 컬러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계열의 색이라 불리는 파랑을 포함한 색(色)들이다. 예컨대 초록, 보라, 청록 등은 공기, 하늘, 물을 연상시키며 차가운 색으로 분류되는데 색의 따뜻하고 찬 성질은 바로 곁에 있는 색의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바뀌기도 한다.[11] 한 가지 예로, 파랑 곁에 보색인 주황기미가 있는 색이 주변에 있으면 채도 뿐 아니라 찬 느낌도 더 강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는 색의 명도나 채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새벽은 시간대로 보면 굉장히 찬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감으로부터 온 색(色)의 의미를 보았을 때 이 색(色)을 해가 뜨는 오전 시간대나 낮 시간대의 나른한 오후 햇살이 내리 쬐일 때, 그 빛을 받은 도심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끌어왔고, 그 공간에 색(色)을 입힘으로 차갑고 막연했던 도시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본인이 생동감을 실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부 공간이라 하면 난

11) 곽재은, 황재은 옮김. (2004).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p.161

간, 창문, 옥상을 비롯하여 그림자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대중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바다.

4. 작품 분석

[작품 4] 견고한 성,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작품 4]

어김없이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늘 보이는 풍경인데 한곳에 유난히 시선이 고정된다.

분명 원래 건물이 되려면 건물 전체가 보여야 하는데 자꾸 한곳에 시선이 간다.

그리고 마치 저 모습은 또 다른 형상의 공간으로 보인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학교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한 곳 만을 응시하게 되었고 그림자와 난간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 모양은 마치 성의 모양과 같았고 학교건물 앞에 있는 다른 건물의 기와지붕은 마치 성벽과 같이 느껴졌다. 그리하여 제목을 '견고한 성' 이라고 부르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에서의 치유 공간' 이라 여겨지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이는 새로운 공간을 그려내었다.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은 그 시간대에 햇살이 충분히 나른하고 따뜻했던 점을 고려하여 붓질의 방향을 빛이 온 곳의 방향에서 시작하여 끝나는 방향으로, 즉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성벽으로 인식되었던 지붕 부분보다 뒤에 있는 성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배경을 White로 처리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이스로 Yellow를 도포하였다. 이 작품은 본인에게 희망이 되고 다시금 신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내면을 다스리고 위로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작품이다.

[작품 5]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1

[작품 5]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작품은 독수리의 비상을 생각하며 다른 작업들보다 과감한 시도를 한 작품이다. 건물의 일부를 응시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이 뒤집어도 집 모양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들었던 이야기 중 독수리의 비상함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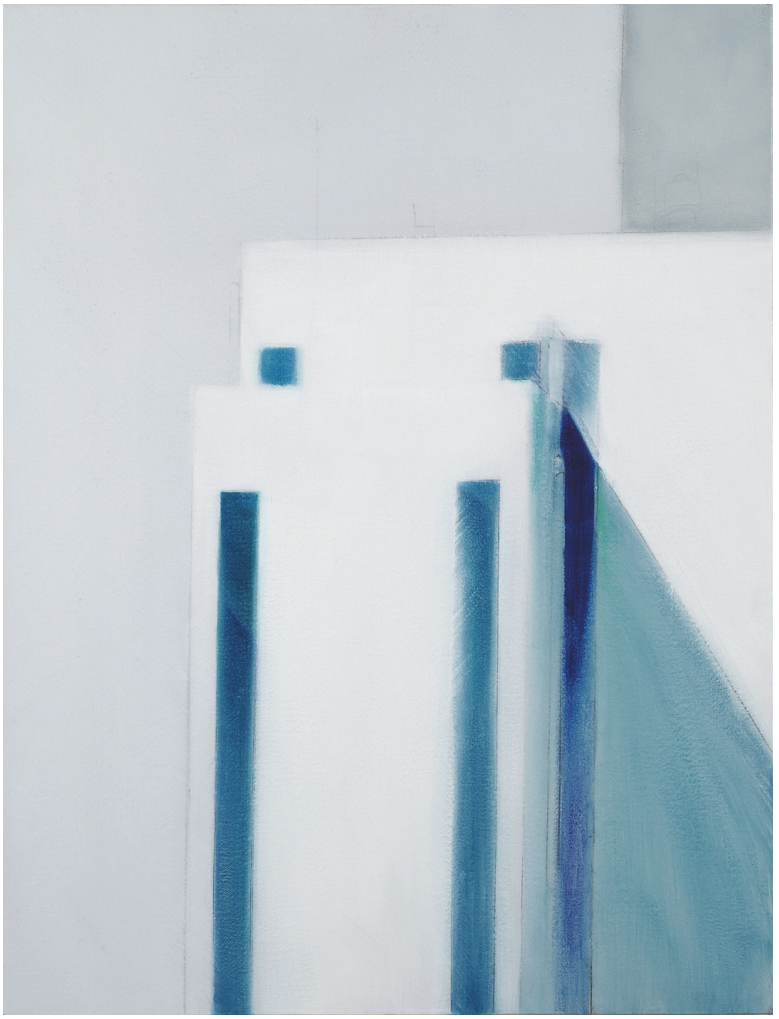
독수리는 날개 짓을 하며 비상하지 않는다 한다. 따뜻한 상승기류를 만날 때 날개를 펼쳐 들면 그 기류를 따라 위엄 있게 창공으로 비상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내 노력으로 아등바등 해보려 해도 세상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누구나가 한번쯤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마찬가지며 부와 명예와 권력 또한 그렇다. 불과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사람이라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는 듯해도 그것들은 한 날의 꿈과 같음을 깨달은바 나 역시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신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독수리와 같이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너른 날개를 펼쳐들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로지 상상력으로 가능한 이 작품은 시원하고 생경한 느낌마저 드는 HYDRANGEA BLUE 컬러와 따뜻한 회색조가 주를 이루게 채색 되었다. 특히 따뜻한 회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화면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자칫 차가운 기운으로 느껴질 요소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건물에 유리창에는 내재적 심상의 알레고리로 유년기 시절의 그리움의 장소를 흐릿하게 표현하였다. 창문과 그림자가 드는 어떤 공간도 어두운 공간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탁한 색상을 자제하고 맑은 컬러를 사용한 점, 그리고 창문틀을 딱딱하고 차가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투명도 높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작품4]와 같이 햇살과 더불어 기류를 표현하기 위하여 붓 터치의 방향 뿐 아니라 햇살, 그리고 바람과 기류의 흔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였다.

[작품 6] Emergency, 50.0x65.1cm, Mixed media, 2011

[작품 6]

'SOAR & Emergency' 전(展)에서 'Emergency'를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작품이다. 이는 비상사태라는 뜻으로 본래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사태의 개념은 갖고 있지만 휴식처의 공간이다. 앞서 본문에서 설명한 색의 개념과 치유 공간의 개념이 건물 곳곳에 창문의 형태로 드러난다. 건물 자체는 이전에 언급한 바와 다르게 도심 중에서도 낡고 허름하지만 생동감 있는 블루 컬러로 아프고 상처받은 내면을 감싸고 있는 효과를 주었다. 이는 중성적인 색감의 차가운 회색이 화면의 2/3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면의 상단 부 부터 아래로 2/3 지점에 배치된 건물의 창문이 대체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설명되어지는 부분이다. 하단부에 1/3을 차지하고 있는 블루는 실외 지하철역 소음 방벽으로 때가 끼고 더러워 보이지만 지하철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에겐 없어서는 안될 방패가 된다. 또한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도 창문의 효과로 못 다한 쉼의 느낌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쳐주게 되었다.



[작품 7] Emergency, 50.0x65.1cm, Mixed media, 2011

[작품 7]

[작품6]과 제목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다 비상사태에 있으나 언제든 전진 가능한 심리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밝은 화이트 톤이 화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빛을 충분히 머금은 형태로 붓 터치가 사선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블루가 생경하게 드러나기보다 화이트 톤의 빛살이 블루 컬러를 살포시 덮어 은은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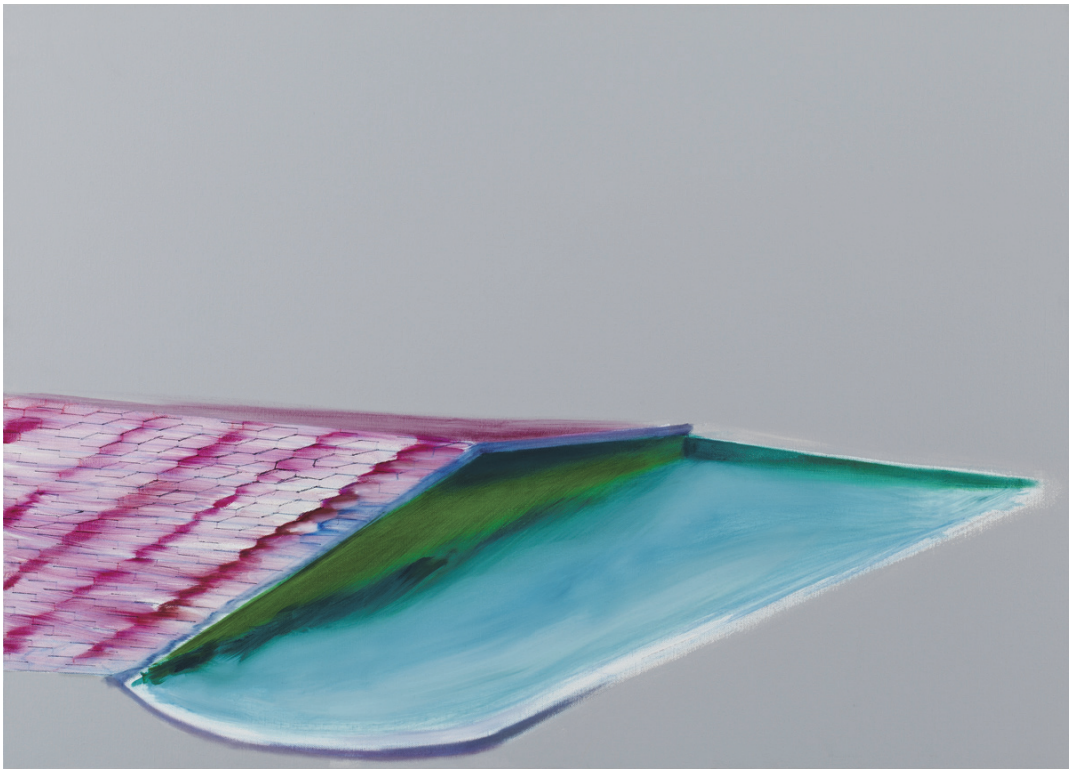
그리고 특징적으로 건물에 비춰진 햇살이 건물의 일부에 부딪혀 그림자가 사선으로 길게 늘어져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자 안에서 충분한 변화들과 빛의 부스러짐으로 인한 효과들이 나와서 더욱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작품 8] 무제,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작품 8]

굉장히 절제된 컬러와 라인으로 처리된 작품을 과정을 거쳐 수분기 가득 머금은 이상향의 공간으로 처리된 작품이다. 본문 내용에 삽입된 작품이기도 한 이 작품은 건물들이 사선 구도를 띠고 있어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유년기시절을 보낸 본인의 시각에서는 익숙함마저 드러난다. 또한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습관적 배경이 묻어나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볼 수 있는 하향 구도를 띠고 있다. 색은 많이 중성화 되어있고 블루 또한 굉장히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색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으나 어두운 느낌은 아닌 것이 대조적으로 화이트 톤이 블루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퍼플 컬러가 오른쪽에 햇살 받은 지붕 끝에 위치하여 화사한 느낌을 받게 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화면의 붓의 처리 방법이 원터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스텐실 기법으로 쌓아 올리되 수분 입자를 표현하거나 햇살의 느낌을 표현한바 여운을 남긴다.



[작품 9] 원풍(遠風), 90.9x65.1cm, Mixed media, 2011

[작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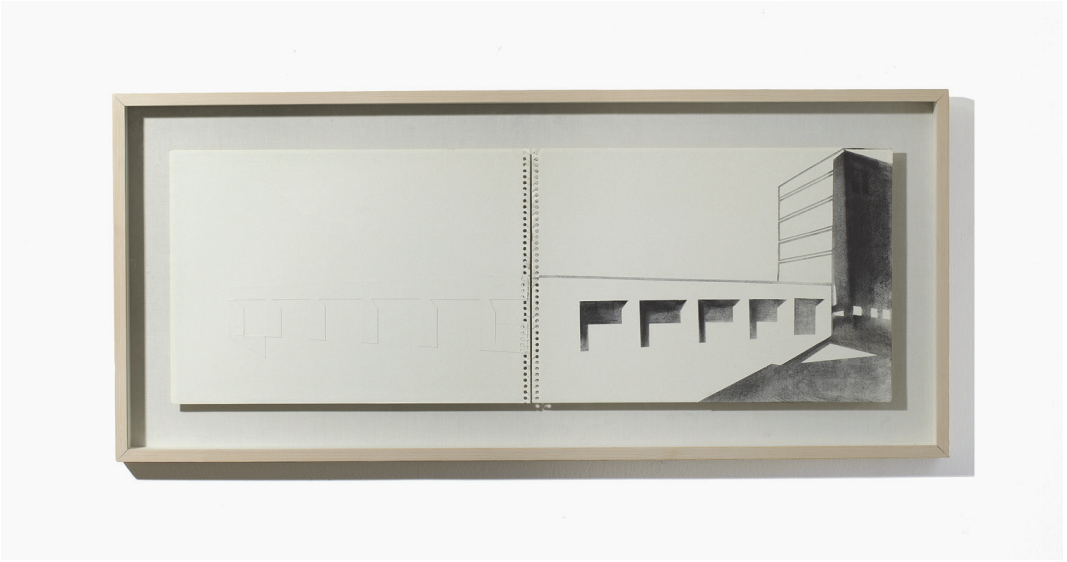
‘원풍(遠風)’ 먼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바람이 얇은 물감을 스치는 식의 처리로 시원한 느낌을 가중한다. 특별히 육각형 모양의 타일이 밀집구조를 이룬 지붕 부분은 아크릴로 담백한 밑칠을 하고 그 위에 펜과 색 콘테로 드로잉을 하였으며 그 윤곽을 흐트러뜨리되 살며시 살려 내었다. 또한 남겨둔 물감 덩어리가 바람의 리듬감에 영향을 미쳐 생동감을 한층 더 극대화 시킨다. 또한 앞에 [작품8]과 같이 화면 안에서의 구도가 사선구도를 띠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하향 구도를 보인다. 지붕 아래 옥상은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를 함께 배치시킴으로써 보는 이 마다 다른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이는 풀장 어떤 이는 하늘 어떤 이는 초원이라는 말을 건네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상향으로 바라본 치유 공간으로서의 느낌을 살려내고자 하였다.

[작품 10] Purify,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작품 10]

다른 작품과 달리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강하며 난간 위로 왼쪽에서부터 형체는 알 수 없으나 짙은 그린 컬러의 그림자가 빛살을 머금은 채 화면의 오른쪽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극명한 대비와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한 낮의 다소 뜨거운 시간대를 상징하고 있다. 이 공간에 담겨진 본인의 심상은 쉬고 싶으면서도 다소 지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중앙에 신선한 컬러의 블루가 청록과 화이트와 함께 배치됨으로 인하여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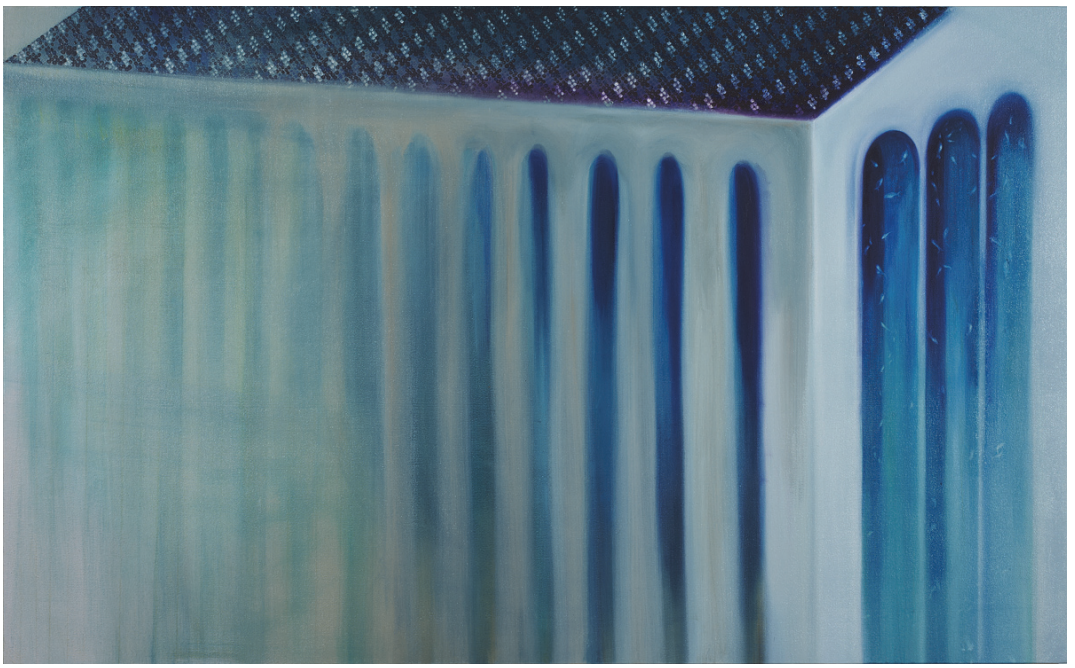
특징적으로 담백한 화이트와 짙은 비리디안 컬러가 절제된 라인과 함께 있어 화면에서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이고자 한다.



[작품 11] 경계근무, 97.5x43.0cm, Charcoal on paper, 2011

[작품 11]

콘트라스트가 극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따사로운 햇살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에 드러나 있다. 그림자에 컬러는 가미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빛살느낌을 머금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창문의 패턴이 화면에 일률적으로 자리하지 않고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개념으로 종이의 오려진 부분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으며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세로건물이 왼쪽에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딱딱하지는 않되 즐거움을 준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림 안에서 가능해지고 그 중심에는 본인의 심상이 발현되지 않을 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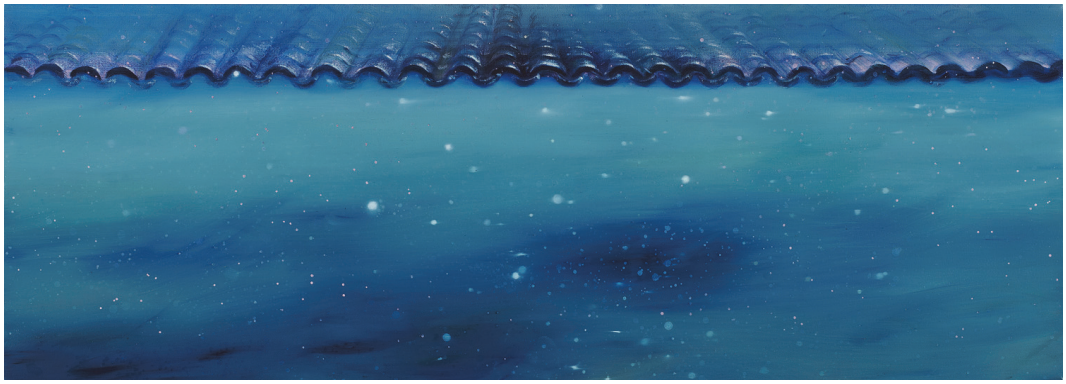


[작품 12] Soar, 145.5x89.4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2]

[작품4]~[작품11]까지의 작업에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발전시킨 작업이다. 이전에 딱 떨어지는 이미지, 그리고 건물의 일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백이 사라지고건물의 일부를 끌어오되 건물이 화면의 전체가 되는 구성방식으로 전환된 첫 작품이다.

또한 이전의 작품이 'Emergency'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SOAR' 즉, '비상하다' 실현의 시작이 되는 작품이다. 나아가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수많은 물고기들을 통해 이상향의 근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인다. 그것은 '도시 건축물에서의 치유공간' 의 개념으로 볼 때 생명이 없는 인공의 재료로 만든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 빛이 건물의 일부에 부딪혀 그림자가 지거나 혹은 창문, 지붕, 옥상, 난간과 같은 공간에 꿈과 희망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맥락이다. 지붕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빛살을 표현하였는데 빛살의 작은 입자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극대화 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다가온다.



[작품 13] Soar, 162.0x60.0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3]

'SOAR & Emergency' 전(展)의 중심 작품이 되는 'Soar'는 지금까지 딱딱하고 절제된 선, 그리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면 안에서 화면을 구성하고자하였던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작품으로 화면 안에서 다른 여지를 주지 않고 작품 안에서 푹 빠져 있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변형된 와이드 캔버스에 상단에는 기와지붕이 [작품4]에서의 꽉 메운 도포식의 표현이 아닌 가벼운 드로잉과 물감의 두께감이 어울러 지는 시원한 느낌으로 구성되었고 기존의 딱딱한 담벼락 공간은 지붕 아래 그림자 속 인공물이 아닌 샘솟는 희망과 바람, 생명력이 가득 실려 있는 공간이 된다. 본인의 병든 아버지가 살아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망을 담아 그려낸 이 작품은 신비롭기까지 한 블루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베이스를 퍼플로 사용하여 유화의 재료 특성상 밝고 화사한 퍼플컬러가 블루와 잘 매칭 되어져있다. 그리고 재료의 기법 표현을 가미시켜 그려낸 도트가 아닌 떼어낸 도트가 희망의 은하수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환경은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한 가지 의미로만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가 아님을 말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상황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환경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본인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정반대의 환경인 도심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그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을 'Emergency' 비상사태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 하였다. 그러나 그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 외적인 현실은 그저 장애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SOAR' 비상하다를 향한 발판이 된다. 본고를 통해 낯선 환경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치유하고 깨달아 가기를 청하여 삭막한 도시 공간 속에서 치유 공간이라 여겨지는 빌딩 숲 이미지의 일부를 확대하고 변형하여 그것을 단순한 구조로 표현하고 본인의 심상이 드러나는 컬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도시 건축물에서 여유로운 구조를 표현하였고 상징적인 컬러의 결합으로 치유 공간을 표현 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자연에서 살다가 도심으로 이주하여 느끼게 된 이질감 그리고 회피방안' 의 개념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비상사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피해야할 무언가로 받아들이는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삭막한 빌딩숲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눈과 인식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장벽의 공간이 행복의 공간으로 바뀌어 질수 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의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환경과 경험의 심리적·정신적 지배를 변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낯선 공간에서 느낀 것을 개의치 않고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예술가의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 재창조된 공간과 시각을 대중과 공유하고 내면의 닫힌 문을 열어 본인과 더불어 소통하는 이의 내면에 치유 공간을 제공한다. 그것을 결정짓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람이 환경과 경험을 의지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지각하듯 예술가 역시 환경과 경험을 많이 의지 하며 지각한다. 본인 또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로서 환경에 영향 받고, 그것을 많이 의지하며 지각하지만 그것이 예술로 연결되어질 때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한 맥락에서 초·중기 작업에서 전개된 후기 'SOAR & Emergency' 전(展)에 전시된 작품에서 작업의 이미지 또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지 안에 알레고리를 두었다. 그 결과 재현을 넘어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속재미를 찾음으로써 이미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언어로 피력할 수 있는 도구로 더욱 다양한 재미와 소통의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누구나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기울여 본다면 ‘Soar' 비상하다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 시대를 넘나드는 듯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인은 순수회화라는 매체를 다루며 이 매체를 통해 예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예술가가 가진 감수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일상의 이미지를 다각도에서 해석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깊이 고

민하고 새로운 시각아래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작업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하고 작업의 내용적, 형식적 전개과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인에게 스스로의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더욱 뜻있는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작업 과정과 연구과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작품진행에 적극적인 촉매제이자, 발판으로 기회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곽재은, 황재은 옮김(2004).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김광중(2001). 20세기 서울의 성장과 변화.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복영(1994). 현대공간의 조형론. 서울: 홍익미술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가. 한길아트

네이버검색 두산백과사전: 카르페 디엠 (carpe diem)

루돌프 아른하임(Roudolf Arnheim)지음. 김춘일 옮김.(1992).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마순자(2003).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박순영(1986). 사회구조와 삶의 질서. 학문과 사상사

박영택(2009). 테마로 읽는 한국현대미술-9.자연공간에 대한 해석- 산수-탈산수 풍경. 두산아트스쿨 강의자료

윤병운(2004). 인체이미지를 통한 논리적 일탈에 회화적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이응철(2008). 자연치유학. 아트하우스

이주헌(2003).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학고재

임춘식(1990).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출판부

최병두(2009).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 아카데미

칸딘스키(1998).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1669&mobile&categoryId=200000849

Rollo May(1974).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서울: 문예출판사

Rudolf Arnheim. (1982).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Susanne K. Langer(1990).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ABSTRACT

Healing space representation of the city in building research

- Focusing on the Personal Artworks -

Yun, Bit-nae-ri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work content and expression form of the works exhibited in the June 2012 solo exhibition SOAR & Emergency, displaying some of the works created from 2006 to 2012 under the subject matter of partial building landscapes of Seoul in the morning when the sun rises and late afternoon.

The implications of space are determined psychologicall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experiences of the viewer.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al aspects of modern society, the human desire to learn and to live a better life is growing in proportion. City construction spaces are reflective of this desire from a static space for human survival to one to achieve a better life.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 humans sometimes leave places in which they were familiar with

and move and adapt in new places. This originates from the small human desire to live a “more fulfilling life.”

The series of works that I created under the theme, SOAR & Emergency, actively brings out the liveliness and moreover translates and expresses part of the soulless constructions in the city built with concrete and steel frames into simplified structures through light. The works are reflective of the self who seeks to break away from the anxiety and isolation felt in the strange environment as well as to actively heal and awaken the self.

Moreover, expression of the effect of light through the selection of the morning and afternoon time slots in which the warm sunlight shines focuses on the emotional influences that the temporality and utilizes the time in which stability can be felt.

eated space and perspective with the public and provides an inner space for breathing and healing for not only oneself but moreover those in communication through the active role of the artist - imparting new meaning without minding the feelings from the unfamiliar space.

This study examines the space perception and fellowship of the artist a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works and researches into how the healing space is expressed in the city constructions in my works by

discussing the resting place and its significance as a vent for humans with the formation of the co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city.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the lively interpretation of the space through the use of light as a way and moreover reality to a beautiful society in which both the visible and invisible people in the society within the artwork live in harmony. This study indicat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my artworks through the world of Do Ho Suh's works that interpreted spac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allegory of the city construction space and moreover light and shadow and color which are all indispensable to space.

As a contemporary man living in a rapidly changing time period as if crossing over different eras, I actively utilize the sensibility of an artist and interpret the images of daily life from multiple perspectives as well as contemplate over the way to adapt and surviv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through the medium of fine arts.